

서체 저작권, 법적 보호받아야 한다

한글 글자꼴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노수용

그래픽디자이너

국민소득이 6천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한글서체 문화발전을 뒤돌아보면 선진문화 산업사회가 만들어놓은 경제대국의 문화를 받아오면서 서투른 시행착오 끝에 었질러진 문화적 축적의 물그릇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홀어진 주관의 구슬을 하나로 엮어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서체문화를 메고 나아가 활자체 연구가나 디자이너들의 바른소리와 바른생각은 었질러진 물그릇을 바로놓고 새 물을 담는데 안간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글 서체문화의 현실은 날로 발전하고 율택해지고 있는 경제·사회·정치 등의 전체 문화에 비해 턱없이 뒤쳐져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틈새에 끼여 소외의 문밖에서 홀로 서 있다는 사실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한 원인의 크기는 물론 그 분야의 내적상황(서체연구와 개발 혹은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외적상황(문화정책·시대적 상황·혹은 법적 보호등의 요소)이 거대하게 작용했음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한글서체에 대한 주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네모틀 글자꼴은 일본식

한국현대사 하면 가장 괴롭게 살아나는 것이 숨막히는 일제시대에 부딪쳤던 뼈저린 기억들일 것이다. 지금의 서체문화의 굴절도 그들의 문화와 상관된다. 원래 글꼴의 형태는 그 나라의 독창적인 글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 유지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학적 구조를 지닌 뛰어난 글이다.

자음14 모음10 세종 당시 28자의 표음문자로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한글의 기본 성격은 모아쓰기 원리로 되어 있다. 한글 글자꼴의 특징을 보면 낱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닿글자 19자와 홀글자 21자의 조합형으로 가로모임·세로모임·섞임모임으로 완성된 글자꼴이다. 그러한 기본원리를 응용하여 설계되어지는데 우리는 한글 글꼴의 두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모든 글자꼴의 낱글자 모양을 네모틀 범위 안에서 고르게 배분·설계·조형하고 다듬어 전체 글자를 일정한 크기의 축정으로 제작한 네모틀 글자꼴이 있으며, 또 하나는 낱글자의 모임성격을 예상하여 제작한 후 이미 제작된 낱글자를 일정한 조합설계 모듈에 맞추어

제작하는 탈네모틀 글자꼴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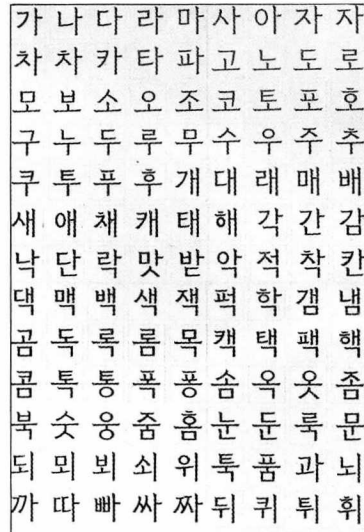
그 두가지 유형의 글자꼴 중 지금까지 많은 한글 글자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네모틀 글자꼴의 유래가 바로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사진식자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33년 발행한 동아일보 서체 한글명조를 일본 이와 다자모회사에서 개량하여 전대자모를 만들었고 그것을 한자명조체에 맞추어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활자종자 조각가와 서체 연구가들에 의해 개량되거나 새로이 제작된 한글 글자꼴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제작된 글자꼴의 구조가 네모틀 글자꼴이었다.

본래 수동사진식자기의 글자판은 일본서체의 구조 원리에 맞게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언어문화는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토록 되어있는데 한자는 물론 일본 가나글자 역시 한글의 모아쓰는 원리와는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꼴이다. 지금의 서체라는 용어개념은 본래 붓글씨(서예)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한자나 일본어 글자꼴은 바로 그러한 붓글씨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들의 글꼴에 적합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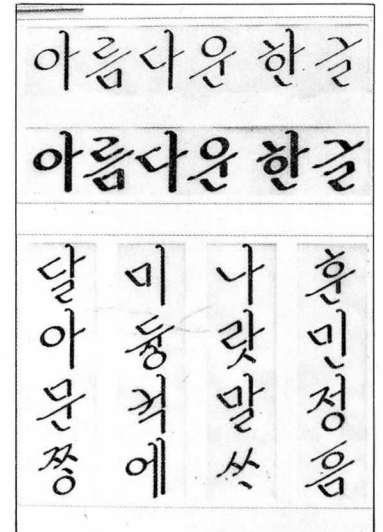
따라서 한글의 글자꼴이 네모틀 글꼴로서 발전되어온 것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기계(사진식자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나 글자 원리에 맞게 제작된 글자판에 한글을 맞추어 설계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글꼴의 모양은 한자 한자 마다의 성격과 얼굴과 색깔과 옷을 갖추고 있다. 사람이 신장과 외모의 크고 작음과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어울리는 의상을 입어야 제대로 멋을 낼 수 있듯이 한글 글꼴도 수천자 한자 한자마다의 크고 작음과 쓰임에 따른 주관적 성격의 개성에 맞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한글 글꼴은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글자꼴 하나하나를 스케치하고 다듬어 설계하는 일은 어떤 수학적 공식에 맞추어 작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본구조의 응용에 의하여 전체의 조형미를 살리는 작업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로, 세로, 섞임 모임에 있어서 낱글자의 수가 많은 것은 크게, 낱글자의 수가 적은 것은 작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가독성, 판독성, 독창성, 시각적 예술성 등이 완성도높게 제작되어질 것이다. 오늘날 한글이 명조와 고딕으로 양대별되어 숫적으로 종류면에서 다



한글서체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 윤종구작.



한글서체공모전의 우수상 수상작, 박찬조작.

양하지 못하고 실제로 서체문화가 발전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네모틀 속에서 만들어진 완성형 글자꼴만이 진정한 한글서체라고 믿었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글 글자꼴의 연구와 제작에 있어서 네모틀 글자꼴의 이해와 구조적 파악이 완전 배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글 서체문화 양식으로서 글자꼴에 대한 시각적 가치판단에 의한 사용자의 자유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서체 개발의 '환경'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한글 글자꼴의 새로운 방향제시와 모색은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시된 방향과 결과를 결국은 사용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의 한글은 글꼴 자체가 제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하고 전산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이제는 수작업에만 의존해야 했던 어려운 환경에서도 점차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놀랍도록 다양한 글자꼴 디자인의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발달된 전산기술과 시각적 예술성의 다양한 접목과 공동작업은 좋은 글자꼴의 개발에 촉매가 될 것이다. 몇년전 내가 광고디자인 문제로 일본 광고전문대행사의 디자이너와 만난 일이 있었다. 약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일을 마치고 떠나던 일본인 디자이너가 내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를 물게 되었다.

한국에는 왜 서체디자이너가 없습니까? 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체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서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듯 몇가지 이야기를 덧붙였다. 일본에는 젊은층에 서체디자이너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문자디자이너라는 당당한 직업을 가지고 일본서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문자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며 상당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게 심한 충격을 준 것이 있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글 서체를 제작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한글이 일본에서 수출되고 있는데 당연히 수입국은 한국이 아니겠는가? 왜 한국에서는 한글 서체를 만들지 않고 일본에서 사다 쓰느냐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내가 광고디자이너를 접어두고 한글 글꼴의 주변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한국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심한 자책감(같은 분야의 직업인으로서)을 느끼며 글자꼴 연구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시각디자이너나 글자꼴 연구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라이선서를 얻어야 하는것도 아니며 고시공부를 하면서 수천 수만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커트라인을 넘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자신의 확신과 의지에 따라 목표를 향해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를 익혀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네모틀 글자꼴의 한 예. 노수용작.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세종대왕훈민정음창제

탈네모틀 글자꼴의 한 예. 노수용작.

나감으로써 완성되는 하나의 고급화된 깨김이 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문화발전에는 외적상황이(문화정책, 시대적 상황, 혹은 법적보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직도 우리는 한글서체 연구가나 글꼴을 제작하는 이들에게 단순노동직이라는 홀대를 준다. 서체 쓰는 사람은 밥먹기 힘들다 라는 말도 한다. 그래픽아티스트로 인

정받고 넉넉한 보수도 보장되는 일본의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그에대한 가장 큰 이유는 서체 제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법이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작해서 발표후 5분만에 카피되어지는 시대라고 말할 한다.

오랜 경험을 쌓은 소수의 전문인들만 고생하는데 그것을 카피해간 비전문인들의 손에 의해 귀한 글자꼴들은 수모를 겪는다. 그러한 시

행착오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손은 관계당국이다. 그러나 글자꼴에 대한 몰이해가 큰 병이다. 글자꼴에 대한 몰이해는 글자꼴의 대량생산과, 시각적 예술성에 상관없이 경제적 생산방식에 대한 선호와, 전산시스템 영업에 필요한 부수적 부속물이라는 착각 등을 일으킨다.

저작권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들

서체(글자꼴)에 대한 법적보호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당위성은 명확하다.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생계가 막연해도 소수의 전문인들은 허탈하게 작품만을 내어놓는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후진양성도 할 수 없다. 게다가 만들어 놓으면 남들이 쉽게 복사해서 이득만 챙겨가니 글자꼴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서체 저작권보호법이 제정되기 힘든 까닭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독일에서는 그 법이 제정된 지 아주 오래고 독일 외에도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우리나라처럼 전혀 무관한 법적보호 대상으로 남아 있는 나라는 없다. 원도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없다면 그에 대응하는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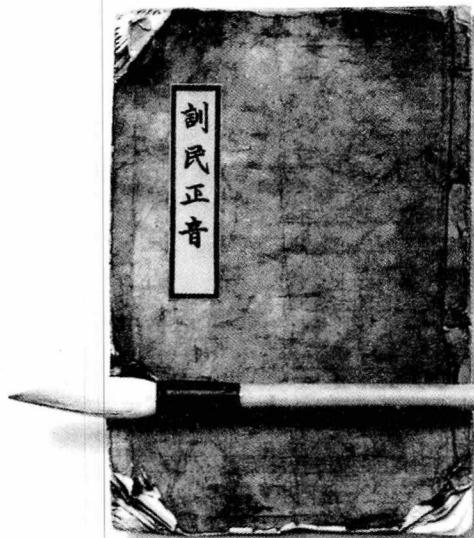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대안을 통하여 글자꼴과 글자꼴 연구가들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폰트에 대한 상품 등록을 인정하여 카피와 해적판을 막는 일이다.

만일 어떤 자가 남의 글자꼴을 복사하여 폰트를 상품화하고 등록하다가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최종적인 물증은 원도가 될 것이므로 그것은 서체(글자꼴) 원도저작권 보호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한글을 사랑하지는 표어가 수시로 나뉘는다. 한글을 사랑해야 나라가 부흥한다고 가르친다. 국민소득이 6천달러라는 나라에서 서체 저작권보호법도 제정되지 않고서 문화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한글서체 문화발전의 자취를 뒤돌아보며 두가지의 문제를 둘러보았다. 선진문화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제대국의 문화를 받아오면서 서투른 시행착오 끝에 굴절된 한글 글자꼴, 자형학에 대한 편견과 글자꼴에 대한 법적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것이다.

발전하는 전산화 시대에 한글 글자꼴이 다양하고 아름답게 개발되어야 할 시점에서 국제화된 정보화시대의 한글 글꼴은 우리 글자꼴 디자이너와 관계당국에게 폭넓은 역할과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서투른 시행착오 끝에 엮여진 문화적 축적의 물그릇을 지금 다시 바로 놓고 새 물을 새 그릇에 담는 것이다.



자랑스런 한글을
 더 아름답게 다듬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
 바로 인컴®의 사명입니다.

DTP. CTS의 本家
(주)인컴컴퓨터그래피
 HANKOOK COMPUGRAPHY CO., L.TD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0-27번지 시사빌딩
 ■ TEL : 02 277-2016 代代表 ■ FAX : 02 277-2019



인컴®은 (주)한국컴퓨터그래피의 등록상표임